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의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의 매개효과 검증

염 행 철 · 조 성 연*
호서대학교 생명과학과 · 유아교육과*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mpathy on Motivation for Parenthood and Definition of Parenthood

Yom, Heng Cherl · Cho, Song Yon*
Dept. of Life Science ·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A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mpathy on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for parenthood and their definition of parenthood. Participants were 1,492 students (male 581, female 898) from 19 universities throughout Korea. Results were: (1) The definition of parenthood was explained for motivation of parenthood (male 7~27%, female 4~24%) and empathy was explained for all the subfactors of motivation of parenthood except 'motivation for traditional norms' (male 4~16%, female 2~13%). Self-esteem was not explained as motivation of parenthood. (2)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from self-esteem on motivation for parenthood or the definition of parenthood in any of the students. (3)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mpathy on motivation of parenthood and the definition of parenthood. In male students,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in 'motivation for strengthening biological family ties', 'altruistic emotional motivation', and 'motivation for deepening marital bonds and perpetuating one's self'. In female students,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in 'motivation for strengthening biological family ties' and 'motivation for deepening marital bonds and perpetuating one's self'.

Key words: motivation of parenthood, definition of parenthood, self-esteem, empathy

I. 서론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되면서 남녀 모두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조사결과들

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전기택(2007)은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15세 이상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6년 21.6%로써 1998년 30.5%에 비해 8.9%나 감소하였다는 결과

접수일: 2007년 10월 2일 채택일: 2007년 12월 3일

Corresponding Author: Cho, Song Yon Tel: 82-041-560-8133 Fax: 041-560-8101
e-mail: sycho@hoseo.edu

를 보고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6.8%에 불과하였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2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남학생(30.8%)이 여학생(23.0%)보다 더 높았다. 반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7.3%나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됨의 동기나 의미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조선일보 2007. 3. 8).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로 젊은 세대들의 팽배해진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일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자녀와 관련한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즉,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생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률 저하로 이어져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8에 이르고 있다. 한편 확산되는 성개방 풍조로 인해 10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미혼모의 발생도 부모됨과 관련하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성관계를 하고 애정만 있어도 혼전관계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며(윤혜미 1999),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관계를 하는 경향이 많다(강영삼 등 1997)는 조사결과들은 차치 미혼모를 양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가 되기 이전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가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여 부모됨에 대한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되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성숙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며, 생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기도 하다. Guttman은 부모됨이 대부분의 여성과 남성에게 생애의 궁극적 의미의 출처가 된다고 지적하였다(유안진·신양재 1993). 과거에는 부모가 되는 것이 결혼과 동시에 행해지는 당연한 일로 간주하였으나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Seccombe(1991)은 현대 들어 부모됨의 태도

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택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동기나 의미도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생물학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심리적, 경제적 만족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으며 되돌릴 수도 없고, 일생 지속되는 연습이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부모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년들,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부모됨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됨의 의미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LeMasters(1957)는 많은 부부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준비 없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조성연 2006).

부모됨(parenthood)이란 실제로 부모가 되기 이전의 심리적인 동기로서 Powell(1993)은 실제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으로, Erikson은 생산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인간은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욕구를 느끼는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부모가 되며, 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정현숙·유계숙 2001). 그러므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심리적인 동기와 부모가 되는 것의 어떤 의미에 따라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됨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가 된 후의 부모역할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논지는 개인의 주관적 입장에서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치를 파악하고 지위와 역할을 획득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인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족현상의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의미와 상징의 학습을 통하여 특정 역할에 대한 자기의미인 정체성을 발달시키며 이러한 의식적 사고와 인지적 의미가 개인의 역할수행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

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는 것의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부모가 되는 동기를 취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에 의한 자아존중감과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배려를 통해 획득되는 감정이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이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부모됨의 동기는 몇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그리하여 Rabin(1965)은 숙명적, 자기도취적, 이타적, 도구적 동기로(조성연 2006), Arnold와 Fawcett(1975)는 연속성·전통·안전, 부모기의 만족감 및 자녀로부터 얻는 성취감, 부모기의 역할,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감과 애정,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목표와 인센티브,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획득으로, 유계숙과 정현숙(2002)은 혈연적 유대강화, 전통적·규범적, 이타적·정서적, 부부결속적, 영속적 동기로, 유안진과 신양재(1993)는 사회적 지위, 자기연장, 창조성취감, 전통성, 일차집단유대감으로 나누었다. 조성연(2007)은 유계숙과 정현숙의 도구를 요인분석하여 혈연적 유대강화, 전통적·규범적, 이타적·정서적, 부부결속적·영속적 동기의 4개 하위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 Veevers(1973)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며 신체적 성숙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부모기는 사회적인 성숙과 개인적인 안정을 나타내는 시기라고 보았다(조성연 2006). 하지만 대학생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다소 환상적인 생각을 지님으로써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부모됨의 동기가 대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부모됨의 의미는 부모가 됨으로써 사회와 개인에게 부여되는 가치로서 과거 생물학적 측면에 역점을 두었던 것에서 점차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Veevers(1973)는 도덕적 의무, 사회 성원 충원의 시민의 의무, 부부의 성생활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 성인으로서의 성정체성 획득, 결혼생활의 유지, 자녀를 통해 정상적인 성인임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조성연 2006). 한편 유계숙과 정현숙(2002)은 도덕성의 실천, 시민으로서의 책임수행,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요구,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를 지니는 것으로서 부모됨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최규련(2007)도 부모됨의 의미를 자기 연장감, 사회적 기대 부응, 사랑과 애정의 욕구충족, 성취감, 풍요로운 생이라고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을 자기를 완성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부모됨의 의미는 성인으로서 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됨의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를 형성함으로써 미래 부모가 될 사람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하여 부모됨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다.

Morahan-Martin(1991)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통, 안정,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목표 및 인센티브,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등과 관련된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Jensen 등(1985)도 부모됨을 일종의 보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부모됨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유계숙과 정현숙(2002)은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를 형성하며,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역할의 책임과 부담을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된 후의 적응을 도와주어 부모됨을 선택함으로써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결과에서 이타적·정서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전통적·규범적 동기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모됨의 동기에 있어서는 부모됨의 특성상 남을 배려하는 감정이입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됨의 동기로서 이타적이고 정서적인 동기

가 높다는 것은 타인의 정서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인 감정이입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됨은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동이므로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감정이입과 관련될 수 있다. 감정이입은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이타적 관심과 배려가 일반화될 수 있다. Batson(1991)은 감정이입-이타성 가설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돕기 행동을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됨의 동기도 감정이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자아존중감도 부모됨의 동기와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량이나 유능함 및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지니는 개념(이숙·최정미 2003)으로서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판단인데, 이는 인간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고 작은 성취를 통해 형성된다(정옥분 2006). Jaffe(2000)는 자아존중감이 생의 초기에 양육자로부터 받은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부모역할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부모됨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계숙과 정현숙(2002)은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를 11~32% 설명해주었으며, 부모됨의 동기 중 영속적 동기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계계승과 상속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설명함으로써 부모됨의 동기는 성차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안진과 신양재(1993)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사회적 지위 요인, 자기연장 요인, 전통성 요인을, 여학생은 창조·성취감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부모됨의 동기에서 성차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조성연(2007)은 3, 4학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와의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과의 관계 및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에는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를 제외하고 $r = .22 \sim .42$ 범위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수가 산출되었고, 부모됨의 동기와 감정이입은 전통적·규범적 동기를 제외하고 $r = .14 \sim .42$ ($p < .05$)의 상관관계가, 자아존중감과는 전통적·규범적 동기와 $r = .11$ ($p < .05$)의 상관관계가 산출되었다.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를 제외하고 24% 이상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에서는 남학생이, 전통적·규범적 동기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지은(2000), 정미라 등(1995)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부모됨의 동기로서 자녀양육 자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이타주의적 동기가 높았으며, 이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은 가문의 존속에, 여학생은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인정을 얻는데 더 가치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관련지어 볼 때, 부모됨의 동기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됨의 의미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이타적 특성이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된 바,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감정이입이 높을수록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의 관계가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Jaffe의 지적처럼 자아존중감이 부모가 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되기 이전에 부모로서의 자아상이 형성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은 추상적 사고를 통해 시간적 조망이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로 확장되는 시기로서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등을 검토해보는 탐색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유계숙·정현숙 2002, 재인용)이므로 미래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동기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설명은 부모가 되는 것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 즉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결국 어떤 의미에서 부모가 될 것인가는 부모됨의 동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관계 속에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이 관여할 수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를 부모됨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미래 대학생들이 부모가 되는데 있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미래 부모교육을 위한 기본 덕목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고, 미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자녀양육과 관련한 상당한 비용의 소요, 개인적인 삶을 누리려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등으로 젊은 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결혼과 자녀출산을 계획함으로써 미래 부모가 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감정이입과 자아존중감이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에서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됨의 의미,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은 부모됨의 동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성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에 감정이입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의표집된 전국의 19개 4년제 대학교 대학생 1,4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된 연구대상의 부모는 대부분 친부모이고(94.3%), 부모의 결혼상태도 초혼(92.0%)이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부모됨의 동기척도

부모됨의 동기척도는 유계숙과 정현숙(2002)이 5개 하위요인의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3 문항, 전통적·규범적 동기 6문항, 이타적·정서적 동기 5문항, 부부결속·영속적 동기 6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는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이며,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성인으로서 대우를 받고자 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동기이며, 이타적·정서적 동기는 개인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이고, 부부결속·영속적 동기는 가계계승과 상속 및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들의 동기 특성이 높은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Subcategory	N(%)
Sex	male	581(39.3)
	female	898(60.7)
Area	Seoul · Incheon · Gyeonggy-do	346(23.4)
	Chungcheong-do	308(20.8)
	Julla-do	338(22.9)
	Gyoungsang-do Gangwon-do · Jeju-do	290(19.6) 197(13.3)
Grade	freshman	727(49.8)
	sophomore	287(19.6)
	junior	277(19.0)
	senior	170(11.6)
College	humanity	319(21.8)
	social science	449(30.8)
	natural science	112(7.7)
	engineering	204(14.0)
	art and music life science	177(12.1) 199(13.6)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74, 전통적·규범적 동기 .72, 이타적·정서적 동기 .74, 부부결속·영속적 동기 .74이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 부모됨의 의미척도

부모됨의 의미척도는 유계숙과 정현숙(2002)이 8문항으로 제작한 것을 요인분석에 의한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7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됨의 의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α 가 .82이었다.

3) 자아존중감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s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63이었다.

4) 감정이입검사

감정이입검사는 김언주(1998)가 30문항으로 제

작한 것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총 28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이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4년 11월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전국의 19개 4년제 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전공이나 교양수업시간 중 질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하게 하여 바로 회수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program(14.0)을 이용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신뢰도 산출을 위해서는 Cronbach's α 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연구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남녀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의 의미,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by sex

Sex		1	2	3	4	5	6
Male	1.	1.00					
	2.	.26 ***					
	3.	.40 ***	.39 ***				
	4.	.39 ***	.60 ***	.59 ***			
	5.	.28 ***	.48 ***	.45 ***	.52 ***		
	6.	-.10 *	.09 *	-.04	.00	.21 ***	
	7.	.20 ***	.05	.40 ***	.25 ***	.18 ***	.01
Female	1.	1.00					
	2.	.31 ***					
	3.	.34 ***	.35 ***				
	4.	.39 ***	.58 ***	.50 ***			
	5.	.21 ***	.45 ***	.33 ***	.49 ***		
	6.	-.11 *	.09 *	-.09	-.03	.19 ***	
	7.	.14 ***	.04	.36 ***	.15 ***	.20 ***	-.02

1. Motivation for strengthening biological family ties 2. Motivation for traditional norms 3. Altruistic-emotional motivation 4. Motivation for deepening marital bonds and perpetuating one's self 5. definition of parenthood 6. self-esteem 7. empathy

* $p < .05$. *** $p < .001$.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 여학생 모두 부모됨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경우에 부모됨의 동기 중 혈연적 유대 강화 동기($r = -.10, p < .05$)와, 여학생의 경우에는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r = -.11, p < .001$)와 이타적·정서적 동기($r = -.09, p < .01$)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부모됨의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들(전기택 2007; 조선일보 2007. 3. 8)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에 부부결속·영속적 동기는 자아존중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정이입은 남, 여학생 모두 전통적·규범적 동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감정이입을 더 잘 할수록 혈연적·유대강화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 수준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이입이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이타적 관심과 배려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 조성연 등(2006)의 설명과 일관되는 결과이며, 부분적으로는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이타주의

적 동기가 가장 높았던 김지은(2000), 박화윤 등(2002), 정미라 등(1995), 조성연(2007)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부모됨의 동기는 관습이나 도덕성보다 타인을 도와주려는 이타적이고 정서적인 면에 더 우위를 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만족이나 심리적인 면에 더 강한 의미를 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전통과 규범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만족이나 쾌락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며, 사회적 압력이나 지위 때문에 부모가 되기보다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부모가 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 대학생의 부모됨의 의미,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이 부모됨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부모됨의 의미,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됨의 동기는 남, 여학생 모두 부모됨의 의미가 가장 많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거의 설명력이 없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

Table 3. Regression analyses for motivation of parenthood: Definition of parenthood, self-esteem, and empathy by sex

Sex	Motivation of parenthood												
	1			2			3			4			
	β	R^2	F	β	R^2	F	β	R^2	F	β	R^2	F	
Male	a	.28***	.07	47.22***	.48***	.23	171.34***	.45***	.20	143.95***	.52***	.27	214.22***
	b	-.10*	.01	6.02*	.09*	.01	4.72*	-.04	.00	1.07	.00	.00	.00
	c	.20***	.04	23.05***	.05	.00	1.43	.40***	.16	108.45***	.25***	.06	38.29***
Female	a	.21***	.04	41.09***	.45***	.20	222.34***	.33***	.11	107.38***	.49***	.24	282.01***
	b	-.11***	.01	10.25***	.09**	.01	7.22**	-.09**	.01	7.81**	-.03	.00	.79
	c	.14***	.02	16.53***	.04	.00	1.33	.36***	.13	133.14***	.15***	.02	21.86***

1. Motivation for strengthening biological family ties 2. Motivation for traditional norms 3. Altruistic-emotional motivation 4. Motivation for deepening marital bonds and perpetuating one's self a. Definition of parenthood b. Self-esteem c. Empathy

* $p < .05$. ** $p < .01$. *** $p < .001$.

됨의 의미에 의해 남학생의 경우에 7~27%를, 여학생은 4~24%의 설명력이 있었다. 감정이입은 남, 여학생 모두 전통적·규범적 동기의 설명력이 전혀 없었고, 이타적·정서적 동기에 대한 설명력(남학생 16%, 여학생 13%)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과거 결혼과 부모됨이라는 것이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이로 인해 혈연적 유대를 중요시했던 것과 달리 부부 개인들의 만족이 우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Seccombe(1991)이 현대 들어 부모됨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선택이 되었다고 지적한 것과도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 중 전통적·규범적 동기도 상당 부분 설명해줌으로써 노후에 자식에 의존하려는 생각이나 자녀를 통해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려는 생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부모됨의 동기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James(1980)가 자아존중감을 성공하려는 것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됨은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Jensen 등(1985)이 부모됨을 일종의 보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부모됨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가 된다고 지적하였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감정이입은 Batson(1991)의 감정이입-이타성 가설에 따라 부모됨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일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의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의 매개효과검증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의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및 매개변인에 대한 매개모델(Mediational model)을 제시하였다. 매개모델에

의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3가지 회귀방정식이 추정된다. 즉, 독립변인의 매개변인에 대한 회귀방정식,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방정식,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회귀방정식이다. 그리하여 매개효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쳐야하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하며, 세 번째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이런 조건들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는 두 번째 방정식에서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더 적어져야만 하고, 매개변인을 통제할 때 독립변인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완전 매개효과를 지니게 된다.

1)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델에 따라 3가지 회귀방정식을 산출하여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성별에 따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모델에 대한 설명에 따라 남, 여학생 모두 1단계에서 부모됨의 의미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3단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어 남학생은 부모됨의 동기 중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전통적·규범적 동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학생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와 이타적·정서적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보다 3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 경우 3단계에서 남학생은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가, 여학생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Table 4. Regression analyse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motivation of parenthood and definition of parenthood

Sex	Stag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R^2	F
Male	1	self-esteem	definition of parenthood	.210***	.042	26.654***
		biological family ties		.275***	.074	47.222***
	2	traditional norms	definition of parenthood	.478***	.227	171.342***
		altruistic-emotional		.446***	.198	143.948***
		marital bonds		.520***	.269	214.217***
	3	biological family ties	self-esteem	-.101*	.009	6.017*
		traditional norms		.090*	.006	4.715*
		altruistic-emotional		-.043	.000	1.071
		marital bonds		-.002	-.002	.003
Female	1	self-esteem	definition of parenthood	.187***	.034	32.426***
		biological family ties		.209***	.043	41.088***
	2	traditional norms	definition of parenthood	.446***	.198	222.336***
		altruistic-emotional		.327***	.106	107.375***
		marital bonds		.489***	.239	282.006***
	3	biological family ties	self-esteem	-.106***	.010	10.254***
		traditional norms		.089**	.007	7.221**
		altruistic-emotional		-.093**	.008	7.813**
		marital bonds		-.030	.000	.786

* $p < .05$. ** $p < .01$. *** $p < .001$.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존중감이 매개 효과를 지니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을 때 β 계수가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전통적·규범적 동기를 제외하고 모든 부모됨

의 동기에서 β 계수가 감소되지 않았고, 비록 감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생의 초기에 양육자로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motivation of parenthood and definition of parenthood

Sex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R^2	F
Male	biological family ties	1. definition of parenthood	.275***	.074	47.222***
		2. definition of parenthood	.310***	.099	32.776***
		self-esteem	-.166***		
	traditional norms	1. definition of parenthood	.478***	.227	171.342***
		2. definition of parenthood	.480***	.226	85.578***
		self-esteem	-.011		
Female	biological family ties	1. definition of parenthood	.209***	.043	41.088***
		2. definition of parenthood	.238***	.064	31.511***
		self-esteem	-.151***		
	traditional norms	1. definition of parenthood	.446***	.198	222.336***
		2. definition of parenthood	.445***	.197	111.071***
		self-esteem	.006		
altruistic-emotional	1. definition of parenthood	.327***	.106	107.375***	
	2. definition of parenthood	.357***	.130	67.830***	
	self-esteem	-.160***			

*** $p < .001$.

부터 받은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부모역할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 부모됨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Jaffe(2000)의 지적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역량이나 유능함 및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요소를 지니는 개념으로서 부모됨이라는 것이 어떤 평가나 성취 등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를 매개하는 효과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James (1980)가 자아존중감을 성공하려는 것에 대한 개인의 욕구로 설명하면서 욕구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송인섭 1990, 재인용)고 설명한 것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됨의 동기도 일종의 욕구로 간주하여 설명될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됨의 동기 수준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충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재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감정이입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감정이입이 매개효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델에 따라 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모델에 대한 설명에 따라 남, 여학생 모두 1단계에서 부모됨의 의미가 감정이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3단계에서 부모됨의 동기 중 전통적·규범적 동기를 제외하고 감정이입이 부모됨의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단계보다 3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여학생의 이타적·정서적 동기를 제외하고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 경우 3단계에서 남, 여학생 모두 전통적·규범적 동기에

Table 6. Regression analyses: Mediating effect of empathy between motivation of parenthood and definition of parenthood

Sex	Stag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β	R^2	F
Male	1	empathy	definition of parenthood	.183***	.032	20.133***
	2	biological family ties	definition of parenthood	.275***	.074	47.222***
		traditional norms		.478***	.227	171.342***
		altruistic-emotional		.446***	.198	143.948***
		marital bonds		.520***	.269	214.217***
	3	biological family ties	empathy	.196***	.037	23.050***
		traditional norms		.050	.001	1.432
		altruistic-emotional		.397***	.156	108.450***
		marital bonds		.249***	.060	38.285***
Female	1	empathy	definition of parenthood	.198***	.038	36.559***
	2	biological family ties	definition of parenthood	.209***	.043	41.088***
		traditional norms		.446***	.198	222.336***
		altruistic-emotional		.327***	.106	107.375***
		marital bonds		.489***	.239	282.006***
	3	biological family ties	empathy	.135***	.017	16.528***
		traditional norms		.038	.000	1.325
		altruistic-emotional		.360***	.129	133.409***
		marital bonds		.154***	.023	21.861***

***p < .001.

서 감정이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여학생은 이타적·정서적 동기에서 β 계수가 증가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감정이입이 매개효과를 지니기 위해서는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β 계수가 감소되어야 한다. 남학생의 경우에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에서, 여학생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에서 모두 β 계수가 감소되었다. 이는 감정이입을 투입하였을 때 이로 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이입이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β 계수가 감소되면서 동시에 유의하지 않아야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비록 β 계수가 감소되었을 지라도 유의하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감정이입이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매개한 것은 사회적인 현상을 포함하여 감정이입과 같은 심리적 측면은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다루어(Baron & Kenny 1986) 단순히 감정이

입만이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를 매개하는 단일 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됨의 동기의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에 대해 부모됨의 의미와의 관계에서 감정이입 외의 다른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남녀 대학생 모두 전통적·규범적 동기에서 감정이입의 매개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감정이입이 다른 사람들을 대가없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됨으로써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든지, 노후의 의지할 곳을 위해 부모가 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이 둘 사이를 매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에 감정이입이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의 하위 요인들을 더 많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학생들의 부모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정이입을 더 잘하므로 여학생에게 있어서 감정이입이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를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mediating effect of empathy between motivation of parenthood and definition of parenthood

Sex	Dependent variables	Stage	Independent variables	β	R^2	F
Male	biological family ties	1	definition of parenthood	.275***	.074	47.222***
		2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247*** .150***	.094	31.137***
	altruistic-emotional	1	definition of parenthood	.446***	.198	143.948***
		2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386*** .326***	.300	125.064***
	marital bonds	1	definition of parenthood	.570***	.269	214.217***
		2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491*** .159***	.292	120.656***
Female	biological family ties	1	definition of parenthood	.209***	.043	41.088***
		2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190*** .097**	.051	24.981***
	marital bonds	1	definition of parenthood	.489***	.239	282.006***
		2	definition of parenthood empathy	.477*** .060*	.241	143.515***

* $p < .05$. *** $p < .001$.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에서만 감정이입이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됨의 하위요인 중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는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감정이입이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부모가 되어 대를 잇는 것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부부만의 만족과 결속을 위한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하여 성별로 부모됨의 의미,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에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이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됨의 의미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의 설명력이 남학생 27%, 여학생 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통적·규범적 동기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남녀 대학생 모두 자아존중감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거의 없었다. 감정이입은 남녀 대학생 모두 전통적·규범적 동기에 대한 설명력이 전혀 없었고, 이타적·정서적 동기에 대한 설명력이 남학생 16%, 여학생 13%로 가장 많았다.

둘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델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자아존중감이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없었다.

셋째,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델에 따라 감정이입이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사이

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남녀 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 부모됨의 동기의 하위요인 중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에서, 여학생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에서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에 감정이입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러한 요약에 따라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됨의 의미는 대학생의 부부결속·영속적 동기를, 감정이입은 이타적·정서적 동기를 가장 많이 설명해준다. 자아존중감은 부모됨의 동기를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없다.

셋째,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에 감정이입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이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남학생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을, 여학생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부부결속·영속적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

본 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생 대상의 부모됨의 동기와 의미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의 영향 및 이들 변인들 간에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측정도구의 사용과 지역적으로 균등하지 못한 유의표집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에 대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됨의 의미를 더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성 및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감정이입의 부분매개효과를 통해볼 때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됨의 의미 간에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이 매개효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등의 변인들을 고려하여 이들 변인들과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됨의 동기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부모로서의 가치관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이 매개변인으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등의 다양한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삼 · 이기종 · 조원호(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연구. 교육논총. 국민대교육연구소.
- 권미경(2004)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지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4), 413-422.
- 김연주 · 이군현 · 윤현석 · 김성수 · 조한익 · 박은희 (1998) 우리 아이 EQ 높이기: EQ 교육법. 서울: 학지사. 261-265.
- 김은주(2006)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 등의. 아동간호학회지 12(1), 89-95.
- 김지은(2000)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충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농업교육학회지 32(3), 47-58.
- 박화윤 · 최계숙 · 마지순(2002)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23(5), 65-76.
- 송인섭(1990)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15.
- 유계숙 · 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유안진 · 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 윤혜미(1999) 청소년 임신 · 출산의 경향과 사회적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8, 161-186.
- 전기택(2007) 부부의 초상, 동상이몽(同床異夢)?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분석 07-12.
- 정미라 · 이희선 · 배소연(1995) 대학생들의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179-197.
- 정옥분(2006) 사회정서 발달. 서울: 학지사. 189, 350.
- 정현숙 ·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319.
- 조선일보(2007. 3. 8) 여학생 10.4%만이 "결혼 꼭 해야". (2007. 3. 8).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8/2007030800114.html.
- 조성연(200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1), 359-373.
- 조성연(2006)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28, 39.
- 조성연(2007).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 아동학회지 28(3), 219-233.
- 조성연 · 이정희 · 천희영 · 심미경 · 황혜정 · 나중혜 (2006)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신정. 357.
- 최규련(2007). 가족관계론. 서울: 공동체. 176-177.
- Arnold, F, Fawcett, JT(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Vol. 3). Honolulu, Hawaii: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Baron, RM, Kenny, D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tson, CD(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Hillsdale, NJ: Erlbaum.
- Clavert, B, Stanton, W(1992) Perceptions of parenth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15 year-old girls and boys. Adolescence 27, 315-329.
- Jaffe, M(2000) 부모교육(공인숙 · 권영옥 · 김영주 · 문무경 · 이강이 · 이경화 · 이완정 · 한미현 공역). 서울: 창지사. 29, 101.
- James, W(19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Jensen, LC, Christensen, R, Wilson, DJ(1985) Predicting young women's role preference for parenting and work. Sex Roles 13, 507-514.
- Morahan-Martin, J(1991) Consider the children: Is parenthood being devalued? Psychological Record 41, 303.
- Powell, DR(1993) Support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early years: Lessons learned and yet to be learned.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Sage. 87.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ccombe, K(1991)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children: Gender comparisons among childfree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1-202.